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은 불가능한가?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의 부진 외에도 사실 최근 1~2달 미국의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했다.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9월 금리 인상의 우려가 경기 심리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흥국 환율 불안과 중국의 경기 불안이 심리 악화를 좀 더 부채질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만하다.

그런데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서프라이즈였다

그런데 예상 밖의 지표가 있었다. 9월 말 발표된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8월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103을 기록하며 예상 밖 상승의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이는 수치 상 과거 호황 때의 수치다. 물론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해 고용 및 물가보다 지표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소비 심리가 양호함을 확인시켜줬다.

4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대체로 예상보다 잘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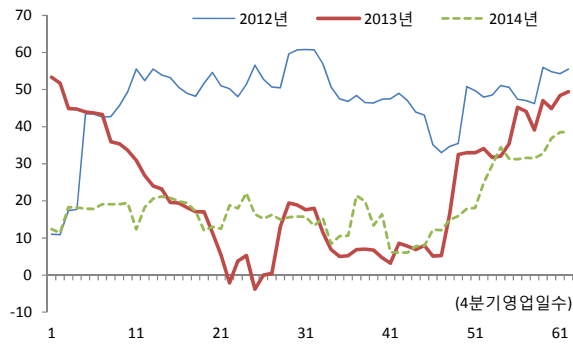
4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대체로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매해 발생한다는 점, 중시 강세의 계절적 패턴, 내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3년 이후 작년까지 12년 결과를 보면 4분기 미국의 CITI Economic surprise index는 대체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009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지수의 기울기가 모두 (+)였다. 올해 역시 고용 상황이 충분히 좋고 소비 심리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4분기 미국 소비 기대감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전략

4분기 미국 소비 기대감 및 지표 개선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 지연에 따른 증시 상승 등은 최근 지표 부진에 따른 연내 금리 인상 불가론에 대한 반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침 중국의 9월 관영 PMI가 상승 전환했고 9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도 소폭 상향되면서 중국 경기 우려도 좀 더 낮아졌다. 4분기 경기 심리는 8~9월과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수개월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랠리가 펼쳐지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판단된다. 달러는 1년 2개월 상승 사이클을 피크 아웃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일 원화의 급격한 강세는 과도한 하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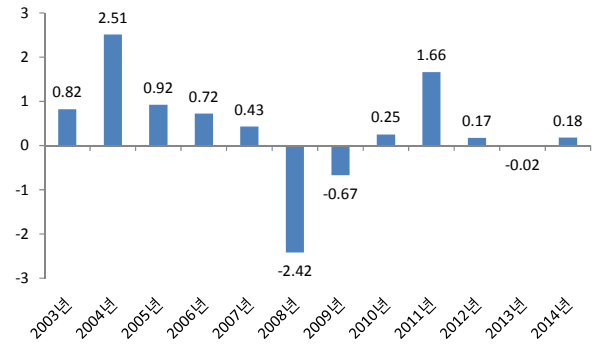
당사는 중기적 관점에서 KOSPI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나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어 둔다. 시장은 Fed의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더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랠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시점은 4분기 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1〉 최근 CITI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2〉 미국 CITI 4Q 경기서프라이즈지수 기울기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와 계열사관계가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